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
총무기획관실


과장 손진욱, 사무관 김경인
(044-200-2797, 2798)

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 내정

- 중앙일보·서울신문 등 기자,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사무처장 등 역임 -

-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(차관급)에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가 내정됐습니다.
- 정 비서실장 내정자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하면서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,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,
 -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,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.
- 국민과 언론, 국회 등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 내정자는,
 -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
- 1959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정 내정자는 대구고, 경북대 문헌정보학과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.

※ (붙임)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내정자 인적사항

성 명	출신지 / 학 력	주 요 경 력 및 저 서
 <p>정 윤 현 (1959.9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남 함양 ·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 ·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· 대구고 	<p>【주요경력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현) 상지대 초빙교수 · SH공사 비상임이사 ·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· 태터앤미디어 공동대표 ·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·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(1급 상당) ·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· 서울신문 문화부차장 · 중앙일보 조사부·통일문화연구소 기자 <p>【주요저서】</p> <p><친일과는 살아있다> <실록 군인 박정희> <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> <묻혀있는 한국 현대사> <조선의 딸, 총을 들다> <안중근가 사람들> 등 20여권</p>